



대표적 보수논객 박태우 교수 내년 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 선언

“대전, 아시아권 4차산업혁명 교두보로 만들터”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54)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태우 교수는 대한민국의 중심권인 대전시가 낙후되고 있다는 현실인식과 어떻게든 그 동안 같

고 뛰어난 지식과 경험 역량을 대전시에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써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앞으로 대전시가 4차 산업



혁명의 교두보가 될 때에 대한 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첨단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

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혁신생태계를 통한 청년창업성장 Start-up타운 조성, 미래형 신산업인 바이오의약산업 허브구축, 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건립,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노후공단 주차환경개선, 대전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등 추진 중인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활기찬 레저문화를 활성화하는 미래지향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잘 추진하는 것이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편과 여러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박태우 교수가 낙후된 대전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 이번 선거가 나서게 되었다는 출마 의결을 냈었다.

박태우 교수는 금산 출생으로 대전에서 대흥초, 동산중, 대전고를 졸업했다. 고려대 2년을 수학하고 한국외대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영국외무성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국 헐(Hull)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 사무관과 외교통상국 다자통상국 의무관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외교관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유지하여 대전을 아시아권 4차산업혁명의 교두보로 만들고자 하는 박태우 교수의 출마 선언이 대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29일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 10월 치러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



세종시 '아동·여성 친화도시비전' 선포 세종시가 29일 오후 청내 여민실에서 아동·여성 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8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지난 9월 19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마련한 것이다.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경제효과 44억원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평가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평가보고회에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청 권한대행과 이규호 추진위원장,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금년도 행사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자체보고회에서 이번 축제에 129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총 3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일간 총 22만 여명이 다녀가고, 경제효과는 4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위상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형·융합형 연출, 유관기관 행사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대외 홍보·마케팅 강화, 먹거리와 야간 프로그램 보완 등 5가지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를 대덕특구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제의 선정, 프로그램의 설계 등 기획단계부터 대덕특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대표 콘텐츠의 지속 개발과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축제를 대덕특구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제의 선정, 프로그램의 설계 등 기획단계부터 대덕특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10년 넘게 못갚은 159만명 소액채무 탕감

1인당 연체 채무원금 평균 450만원... 총 6조2000억 원 규모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2017년 10월 31일 기준)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탕감해주기로 했다. 약 159만명으로 추정되고 총 최대 6조2000억원 규모다. 1인당 연체 채무원금은 450만원 꼴이다.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법원 개인회생시 적용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 기준인 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과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보다 더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깊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어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 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보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

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의 혜택을 확대, 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

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하겠다"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원방안 시행으로 사실상 상황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두 가지에 유념하여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고른 나와 대한민국

울퉁불퉁 들쭉날쭉 기우뚱한 것보다
고르고 평평한 게 좋습니다.

수도권도 지방도 골고루 잘사는 나라
'행정수도 세종' 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충남 주요하천 수질오염 원인의 70% '생활하수' 때문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충남의 주요하천 오염원인 분석'

충남 하천 수질오염 원인의 약 70%가 생활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홍수 전임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29일 "충남의 주요하천 오염원인 분석"(충남정책지도 제17호) 보고서를 제작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번 정책지도는 도내 주요 하천의 오염 원인을 분석해 수질개선을 위

한 우선순위 대상하천을 선정하고 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충남의 주요 하천 수질은 61.1%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보여 2등급 이내(1~5등급 기준)의 좋은 수질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은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활하수가 약 70%를 차지했고, 그의 축산 폐수와 분뇨,

비점오염원(토양 등에 의한 오염)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로 1순위에는 생활하수 영향이 큰 하천으로 천안천, 청지천, 온천천을, 2순위인 축산폐수 영향이 큰 하천은 둔포천, 금리천, 성환천을, 3순위인 복합적인 영향이 큰 하천으로 아산천, 매곡천, 흥인천을 선정했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충남 주요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기초정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물관리 정책의 목표달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정환기자



국민정치아카데미 유창선 시사평론가 특강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인 수강생들과의 열띤 토론속 진행

국민의당 충남도당은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국민의당과 중도' 강의와 조규선 전 서산시장의 '충남민심 공략을 위한 능동적 캠페인 전략' 특별강의가 내년 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인 수강생들과의 열띤 토론속에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정치인의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민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캠페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치프레이밍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경륜과 지혜'의 아이콘 박지현, '새정치'의 아이콘 안철수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작폐의 원조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들만을 위한 패권주의 삼류정치의 적폐극복을 위한 열정, 투쟁의 에너지를 통합

하여 국민을 위한 시너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우리나라는 EU·북미 정치선진국이 걸려온 도전과 역사의 길을 압축 성장한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자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대명제는 각 지역의 특색, 현안, 경제, 문화, 산업 등 여건이 다르기에 그 현실과 실정에 맞게 정부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시민 친화적으로 실행해야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치철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선진국형 분권주의 정당을 강조하고 당헌 당규에도 지방선거는 시·도당 책임 하

에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배경이라 하며,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조적 패권주의 극복하려는 바른정당 등 야권간의 선거연대·통합 등을 통하여 정치프레임의 능동적인 변화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지방 정치권에 실질적인 역할을 키우기 위해 국민정치아카데미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Best 지방정치 지도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인 국민정치아카데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하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강의이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무궁화 진흥 사업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지방정부지원 무궁화 진흥 사업 체계적추진

충남도의회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상을 제고할 기반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이공휘 위원(전안8)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 대표지역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 지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병국 위원(전안3)은 "조례안 가운데 제10조 무궁화 진흥 지원위 설치와 관련된 조문은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규 위원(아산2)은 "현재 산림청장이 무궁화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조례에서 나타난 위

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덕민 위원(논산2)은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취지는 매우 좋다"면서도 "무궁화 식물의 진딧물 등 이 다른 농작물로 옮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문규 위원(전안5)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기업배출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도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매년 증액되는 출연기관 출연금 문제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열린 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증액되는 출연기관 출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출연기관의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서에 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디자인 단과제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집행했다"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위원(전안4)은 "추경에서 50% 이상 집행하지도 못한 예산을 분예산에 추가 증액해 편성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성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올해 국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보통교부세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했다"며 "행감에서도 도입대 수산화물 신설을 적극 추진, 수산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충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충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전 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근로 환경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이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센터장 여상철, 이하 센터)가 29일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형 공인노무사(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 노무법인 이수)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2만2천여건의 부당 피해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과 지원 기관의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주환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현재의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며 지원 기관별 발전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송태수 교수(고용노동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 전명동 노동인권전문위원(서울시 교육청), 김명환 공인노무사(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황성미 사무처장(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이부용 서기관(고용노동부)이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관련 지원 기관들과 국회, 중앙부처,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에 집중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청소년 근로 권익 상담 사례'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으며 보다'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상담 사례들과 통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청소년 노동 상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으며,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통합포럼 대전서 개최

국민통합포럼 세미나가 30일 오전 8시 국민통합포럼 세미나를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의 정치지형과 중도개혁정치의 비전"으로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국민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국민통합 포럼은 이념·지역·빈부·노사·세대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대정신에 맞게 공동체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실현 및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本社辭令

의원면직
▲ 정치부장
免, 최영진
(11월 30일자)

당진시의회, 12월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난 29일 6개소 현장방문, 분야별 개선사항 지적 예고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우는 제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당진시의회의는 지난 10월 17일 제4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기후 의원, 부위원장 편명희 의원을 선출했다.

홍기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이 부여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시정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올바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현황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피벌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진=최근수기자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정치대학원 제5기 수료식

도당 주요당직자와 제5기 정치대학원 수료생 122명 참석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우)은 30일 오후 3시 30분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충남도당 정치대학원 제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당 주요당직자와 제5기 정치대학원 수료생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교육과 훈련에 집중했던 수료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앞날에 행운과 번성을 가득차길 기원할 예정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애국·애향의 정신, 선명후사의 정신으로, 국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낮은 자세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보수우파는 왼쪽으로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흠어진 우리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박찬우 도당위원장은 "여기까지 수료생 전원은 인본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수의 통합과 혁신으로 자유한국당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갈 우리의 귀중한 동지이고 자선이다"고 발언하며 "정치 초년병 시절의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나라와 충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밑알과 알곡이 되어달

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10월 20일부터 6주간 진행된 이번 정치대학원은 '첫선거 완정정복의 지름길!', '라는 슬로건 아래, 당내 & #8228;의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지역의 예비 정치 지망생들에게 보수우파의 철학과 사상, 선거에서 필요한 실천 지식을 함양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번 정치대학원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실력있는 인사들을 영입·발굴하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실력과 이론으로 무장된 정치인재, 지역일꾼들을 일궈내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안전해소위, 도로·주택·교통 등 예산 심의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9일 열린 국토교통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주택·교통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집중 심의했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내년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이 100억여원 증액 편성됐다"며 "당진·서산 간 국지도 건설 등 도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산-부석-장리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우회도로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지속해서 발

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계기로 버스에 안전장치 부착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업용 버스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및 비상차동 제어 장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지현 위원(계룡)은 "신유·정족지구의 위험사면 정비사업과 당정·산성도로의 배수로 정비 등 공사가 명시 이월됐다"며 "동절기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2차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내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 8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4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됐

다"며 "교통사고 저감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내년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붕 사업 예산이 1억 4000여만원 감액 편성됐다"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업은 예산을 집중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낙은 위원(논산2)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 보행자 등 통행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 최대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진정인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며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이 1인 시위가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행위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서 임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 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위험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관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의 경비 인력들이 배치돼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행 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대사관 앞 인도의 통행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김태선기자

충남중소기업 비정규직 70% “같은 일하지만 불이익 당해”

차별 개선 위한 근로감독 강화 제기

충남 중소기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70%가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가 제기되었다.

이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지영 연구위원이 지난 5월 도내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천안시·아산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300인 미만)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충남 중소기업체 여성노동실태 연구’에서 드러났다.

비정규직 261명 중에서 61.3%가 정규직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께 근무하면서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71.3%로 나타났으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양립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가사양육부담(71.8%)이 가장 높고, 30대는 자녀양육부담을, 40대는 가사노동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47.4%)와 20대(42.9%)의 ‘출산퇴직 관

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충남의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 경험률이 높은 점에서도 드러났다.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여성 임금노동자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63.9%로, 전국 59%와 비교해 4.6%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체 여성노동자들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승진 성차별 경험률이 높고, 성별 직종·직무분리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임금에서의 성차별 경험에 있다’가 73.6%, ‘조직문화에 대해 남성채용 경향성이 있다’가 60.0%,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경향성이 있다’가 76.8%로 나타났다. 그 외에 직장 내 승진 체계가 있는 경우는 50.8%, 승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2%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 결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우가 24.3%, 경험하지 않았지만 피해경험을 듣거나 본 적 있음이 19.5%

로 응답했다. 그러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직장 내 고충처리 기구 및 담당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5.4%로 중소기업체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도 또한 함께 제기했다.

한편, 판매서비스직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1년 미만 비정규직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일의 특성상 감정노동을 하며 고객으로부터 인격적 무시, 욕설 등 피해를 겪음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고객응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받고 있고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할. 또한 직종 가운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가장 고용이 불안하고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기업체에 고객대응 매뉴얼 마련과 고충처리 기구 마련,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 노동인권이 강화될 필요가 시급하다.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가장 열악

한 노동조건을 가지며 주로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며 비정규직에 저임금,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경력개발과 좋은 일자리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환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백제 문화의 산실 충남 입성

평창을 발원 동계올림픽 성화가 5일(화) 백제의 문화가 숨쉬고 있는 충남에 도착, 101일간의 여정을 이어간다.

제주와 경남, 전라도를 거쳐 충남에 도착한 성화봉송단은 5일 부여를 시작으로 태안·홍성(6일), 당진·서산(7일), 공주(8일), 아산(16일), 천안(17일)을 달리며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와 자연경관을 알릴 예정이다.

성화봉송단은 공주 봉송 후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광역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한다.

성화봉송단은 정립 사지, 마애삼존불상 등 대한민국 역사의 한줄기인 백제문화를 성화의 불꽃으로 밝게 비추고 낙화암, 안면암, 태안 바닷가 등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릴 예정이다.

5일 성화봉송은 백제대종을 시작으로 능산리 고분군, 백마강유람선 선착장 등을 거쳐 정립사지까지 이뤄진다. 이날 성화봉송단은 황포돛배로 백마강을 일주, 부소산과 낙화암의 절경을 소개한다. 또 사적 제14호인 능산리 고분군과 사적 제58호인 부여 나성을 알린다.

6일에는 만리포 해변을 비롯해 광천읍사무소, 홍주의사총 등 태안과 홍성 일대를 탐험하며 지난 2007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원상복구된 태안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

광을 소개한다. 7일 방문하는 당진과 서산에서는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해 해마순교성지, 잠양부 등 충남이 간직한 고유의 문화를 성화의 불꽃으로 밝힌다.

8일 공주에서는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17일 천안에서는 우리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 독립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성화의 불꽃은 515.1km를 총 398명의 주지들과 함께 충남의 명소를 세계에 알릴과 동시에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의 의미를 실현할 예정이다.

충남지역 성화봉송에서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이번 봉송을 통해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를 계획하는 남성, 피겨꿈나무, 요리사, 손자에게 열정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 할아버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씨스타의 소유, KPGA신인왕 타이틀을 보유한 최진호 선수,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인 송태준 선수, 리우패럴림픽 탁구 국가대표 김옥 선수, 장애인 육상선수 김다희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성화를 봉송한다.

성화가 충남에 도착하는 5일부터 봉송이 진행되는 각 지역에서는 성대한 지역 축하 행사

가 개최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지역축하행사는 5일 정립사지, 6일 홍주성 여하정, 7일 서산 문화회관, 8일 공주산성, 16일 온양온천역, 17일에는 천안시청 후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축하행사에서는 백제의 문화를 소재로 서동선화 판타지 뮤지컬, '백제의 멋과 흥'이란 주제의 춤과 전통음악을 비롯해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회범 조직위원장은 "충남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하면서 백제의 문화를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선조들이 만든 문화재와 함께 태안바다 등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화봉송단은 9일(토)부터 사흘간 정보통신기술(ICT)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전을 방문, 대한민국이 보유한 ICT 기술과 함께 대전만의 볼거리를 소개한다.

성화봉송단은 후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와 인간형 로봇 후보가 참여하는 스페셜 봉송을 진행한다. 스페셜 봉송에는 ICT 분야 꿈나무와 한국계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도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에서는 코리안특급 박찬호와 함께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 등 체육인, 장애인·학생·어르신 등 지역을 대표하는 316명의 주지들이 성화를 봉송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으로 국민의 건강이 활짝 웃습니다!

금연, 이제 치료비 부담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로 성공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병·의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제치, 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문의 1577-1000

“우체국 연하카드로 따뜻한 정을 나누세요”

충청우정청, '황금개띠의 해' 우체국연하장 출시



전해 주는 2018년 우체국연하카드 총9종(카드 8종, 엽서1종)을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 우체국 연하카드는 봉투에 우표가 인쇄되어 있어 구입 후 추가 요금 없이 바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우체국연하카드 고급형(3종)은 1500원(프리미엄(준등기) 배송 2000원)이며, 일반형(5종)은 1200원, 연하엽서(1종)는 500원에 판매한다.

2000원에 판매하는 프리미엄 연하카드는 배달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준등기서비스로 배달되며, 구매고객에 한해서 판매기간 종료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시상하는 경품이벤트도 실시한다.

또한, 1000매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면카드 디자인에 원하는 '로고·사진·그림 등'을 넣어 제작 및 발송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맞춤형연하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동형 청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연하카드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과 새해인사를

송병배 기자

● 특 ● 정 ●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30일 오후 3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2017 대전예술인대회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30일 오후 3시에 동방빌딩에서 열리는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오후 5시에 호텔 ICC에서 열리는 2017 대전예술인대회에 참석.

대전 예술인대회



한현택 동구청장= 30일 오후 5시 호텔 ICC에서 열리는 대전 예술인대회에 참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박용강 동구청장= 30일 오후 3시 동방빌딩에서 개최되는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장중태 서구청장= 30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 239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지역자활방재단 방재교육



허태정 유성구청장= 30일 오전 10시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유성구 지역자활방재단 방재교육에 참석.

모니터링 활동 최종 워크숍



박수범 대덕구청장= 30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성친화도시 시포터즈 2017년 모니터링 활동 최종 워크숍에 참석.

市, 2017년 하수 행정 종합평가 '동구' 최우수기관 선정

“하수행정 수행 능력 한층 더 강화”

대전광역시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하수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동구', 우수 기관 '중구', 장려 기관 '유성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된 이번 평가는 3대 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수행정 종합 평가는 ▲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 하수도 시설물 설치·관리, ▲ 하수도 준설 등 총 3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2017년 자치구 하수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확인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전 분야 평가항목에 걸쳐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얻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자치구 모두 하수행정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도시기반시설임에도 하수라는 좋지 않은 인식 등 열악

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전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준결과로 한층 발전된 하수행정을 구현하고 있음을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하수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게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수사례 등 잘된 하수행정 분야 자치구에 전파하고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은 개선 또는 보완해 나가 하수행정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 발간

대전광역시시는 하수도 행정업무 전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하수도 행정업무에 대한 하수도 관계법령이나 규정,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그동안 처리해 온 사례들을 반영하고, 하수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작성했다.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은 ▲ 총칙 ▲ 공공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 공공하수도시설 행정 업무 ▲ 하수관로 설계 ▲ 하수관로 시공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물 DB 구축 및 관리 ▲ 하수도 원인지부담금 부과·징수 ▲ 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침 ▲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 오염총량관리제도 해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매뉴얼에는 공공하수도 시설현황과 함께 단계별 하수관로 분류화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 수립 등 2035년 목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주요 내용도 수록했다. 또한, 하수도 정비사업 시행 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각종 평가나 심의·협의 절차 및 내용 등을 담았고 특히, 지난 10월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 내진 설계 기준도 수록해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는 하수행정 최 일선에서 시민들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민 생활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개인 배수설비* 설치·신공 및 준공검사의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강조하면서 하수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총 130부를 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해 하수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그간 하수행정 업무의 여건변화에 따라 공공하수도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며 "시의 하수행정 지침서로 널리 활용하고, 본 매뉴얼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행정 역량이 향상되어 시민들께 한 차원 높은 하수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중구, AI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따른 예방 대응

가족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지역농가 홍보-지속적 예찰활동 병행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최근 고창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가족질병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AI재난안전상황실도 매일 운영하며 ▲소독약과 방역복 등 방역물품 농가 배부 ▲지속적인 농가 예찰·홍보활동 ▲농가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AI전파 경로가 야생조류

의 가금농장 주변 접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겨울 철새가 머물 수 있는 천변의 집중 소독과 축산농가 사육시설에 야생조류 접촉방지 그물망 설치 홍보활동으로 지역 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중구 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 53개소 980두가 있고, 오일드엔 66종 527수가 사육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소독과 일반인 출입제한, 위생관리 준

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없고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5분이상 조리할 경우 감염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닭고기 섭취에 안심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창 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새로운 H5N6형 바이러스로 올봄까지 기승을 부렸던 바이러스의 국산상재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대비 동구 일제 대청소의 날 개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다 음달 9일 대전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에 앞서 29일 자양동 일원에서 일제 대청소의 날을 개최했다.

성화봉송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 전역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 지역주민과 우송대학교, 우송공업대학교 학생 등 총

100여 명이 대청소에 참여하며 힘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우송대학교 등 성화봉송 노선구간을 중심으로 거리환경 정비와 함께 자양동주민센터와 동광초등학교 등 주변 상습투기지역의 무단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주변 삼정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는 홍보 활동도 잊지 않았다.

한현택 구청장은 "대전의 관문인 동구를 달리는 성화봉송 행사를 위해 주민 모두가 두 팔 걷고 대청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3개월 가량 앞둔 전세계적 스포츠 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유치를 온 구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치매 걱정 없는 대덕구 만들기 앞장”

대덕구, 치매극복선도기관 운영 공동협약 체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치매센터(센터장 이애영), 대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소희),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이원),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광훈) 등 6곳과 치매극복선도기관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전담직을 가졌다.

전광역시 치매센터가 손을 잡는 첫 사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치매 예방과 관리, 치매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극복기관으로 지정된 구 관내 복지관 5곳은 '치매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세대별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등 치매극복사업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대전 자치구와 대

약식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서 '치매 걱정 없는 대덕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지역사회 의 기업, 단체, 학교 등이 치매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보건복지부 설치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성기자

서구, 2017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지역 사회 관심·협조 당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2017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전경찰서, 대전하나센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자유총연맹서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복지만두레 서구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위원들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또한, 12년 최초 구성된 '서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 보호를 담당하는 서구 불비주택 관리기관 소속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지원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곽승근 총무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평가회

유성구, 맞춤형 일자리 제공·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의 장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은 29일 (사)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가자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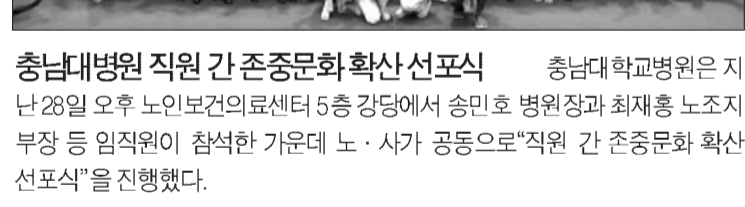
이번 평가회는 일자리 유공자 표창과 사업의 성과보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더 나은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의 장이 됐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7개 동아리 회원과 유성문화원 등 어르신들이 참가해 그동안 배운 것을 나누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용, 악기연주, 댄스 등 위안공연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 한해 4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區(洞), (사)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시니어클럽, 유성문화원, 호동복지재단 등 6곳의 수행기관을 통해 총 37개 사업, 2,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제16회 QI경진대회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지난 28일과 29일 오후 5시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제 16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진료부, 간호부 등 30개 부서에서 격려환자 감염관리지침 제작 및 수행률 향상 활동, 응급실 민원 사례 감소 등을 통한 외부 고객만족도 향상, 외과적 손 위생 수행률 향상을 위한 사전차단 활동, 치료목적에 맞

는 식식처방과 식물관리 향상 활동 등 환자안전과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수행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이날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을 비롯 참가한 전 부서에게 상금을 지급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에너지이용합리화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서산시, 주택·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주민편의 에너지 복지 신규 사업 발굴

서산시가 추진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이 충청남도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임을 인정받았다.

시는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주관해 28일 개최된 '2017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5년 연속으로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서산시가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

충남도에서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경정 이행,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신규사업 및 에너지담당 업무추진 참여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주택 및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주민편의 에너지 복지 신



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했다.

서산 도서지역 신재생 용·복합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등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힘을 쏟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로당 등 전체 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민·관·사 에너지지킴이를 운영했으며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산하 기관 점검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 에너지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 일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

아산시 실업률 1.7%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2585천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663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1635천명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 2017년 상반기 고용률은 63.2%로 전국 고용률 60.8%보다 2.4%p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은 1.7%로 전국 실업률 4.2%보다 2.5%p 낮게 나타나 일자리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

782%, 여성 4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배 높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 산업 취업자의 비중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2019년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2단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고용률 증대 및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고용의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아산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전통시장 새로운 밤을 준비하다

먹거리·볼거리가 다양한 청양전통시장 야시장 개장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2일부터 청양전통시장 야시장을 개장한다.

야시장은 매주 토요일과 장날(2일, 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청양전통시장 중앙광장(한복점과 다목적장터 비기림시설에서 남찌와 남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청양전통시장은 그 동안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야시장 운영으로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뉴는 팝핑이 볶음, 구워먹는 치즈, 수제꼬치 등 어른과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음식으로 10개의 매대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대 운영자 5명을 추가 모집해 다양성을 더 할 방침이다.

내달 2일 야시장 개막식에서는 '꽃길백리 물길백리'를 불러 청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지나유를 포함해 견우와 직녀(청강나루아가씨, 당신뿐이야), 박기성(나의 노래), 이철민(청춘아 가지마) 등 다양한 출연진이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한편 청양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사업단은 칠갑산의 맑은 별과 청양고추에서 모티브를 얻어 '눈이 반짝이고 입이 번쩍이는 청양전통시장'이라는 테마로 별과 관련된 소재로 환경을 개선하며, 거북이빵과 다양한 고추소스를 개발해 청양 대표 특화상품으로 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충남 지역 '2017년 R&D컨설팅 서비스' 열려

맞춤형 R&D 1:1컨설팅 진행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 흥원과 공동으로 '2017 R&D컨설팅 서비스'를 30일 낮 12시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정보

진흥원 사업 담당자와 1:1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예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R&D 선정기업 및 종표기업은 사업비 집행, 협약변경 등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과제신청 후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법 등을 1:1 상담으로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행사 당일 오후 4시까지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인섭 청장은 "사업안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MG희망나눔 경로당 난방비 전담식

한밭세마을금고는 지난 28일 금고 3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MG희망나눔 경로당 난방비 전담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경로당 17곳의 노인회장과 총무등 34명이 참석했으며, 금고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50만원씩 총 850만원의 난방비가 전달됐다.

한밭세마을금고 최순상 이사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늘려 나갈 것이며 경로당 유류대지원사업도 계속해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밭세마을금고는 현재 회원수 4만9419명에 총자산 4929억원, 공제 자산 2688억원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했으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의 정례화 및 해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증진에 앞장 서고 있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 협력망 '구축'



홍성군은 28일 관내 9개 업체와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지리 협력망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관내 업체 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 및 자유토론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여성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에 ㈜솔피 F&C, ㈜광일테크, ㈜동신포리마, ㈜세립산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어진, 홍성중장기 청소년센터, ㈜클린환경센터, 홍성제가요양서비스센터,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 9개 업

체가 참석을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참여 업체는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홍보 방안 및 구직자 취업 연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체 사후관리 사업과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이화선 새로일하기센터장은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어 감사하며,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2018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 9월 21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홍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으로 여성 일자리 발굴, 맞춤형 구직교육 및 취업자·기업체 사후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1-630-9541-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김정한기자

대전식약청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열려

수입식품 법령 개정사항 설명·성실한수입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식약청은 대전·충청지역 식품수입자, 수입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를 30일 대전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달라지는 수입식품 관련 법령 설명, 수입식품 성실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과 관련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민원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산시, 대학생 행정 참여제 수료식

선문대 및 순천향대 대학생 70여명과 시청 관계자 참석



아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선문대 및 순천향대 대학생 70여명과 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하반기 대학생 행정 참여제 수료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 및 발표회에서 학과목인 인사행정론 및 재난안전론과 관련된 주제로 최종 선발된 5개조가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한 유언 근무제 확대 및 인사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발표됐고 특

정부·관계부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위한 주거 복지 로드맵

정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세아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청년 임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청약 통장은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월세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1인 가구 대출연령 제한을 25→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할상환도 허용한다.

▲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수도권 4.7만)를 공급하고 특별공급을 공공 15→30%, 민영 10→20%로 2배 확대한다.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을 도입한다. (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를 공급연계형 매입임대 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50만원 이상 확대한다.

▲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41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의 지원을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강화한다.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공공임대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을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제공한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로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노후 공공정사를 복합개발하거나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를 실시한다.

▲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을 총 2만호 공급한다. 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를 적용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규제를 강화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까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9%로 달성할 계획이다.

▲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해 총 15만호 공급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

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한다. 택지확보의 경우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로 확보한다.

◇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주택임대차보호법 범부-국토부가 공동소관하여 주거·부동산정책과의 연계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를 개선한다. 도심 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강화하고 투지규제를 합리화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태성기자

세계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가 천여명, 제주서 모여 문화재청(청장 김중진)은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유산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제12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오는 12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개최한다. 24개 위원국의 대표단 이외에 17개 협약국의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국,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 행사를 주관하여 그 특별함이 더하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2007년에 중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201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바 있고, 대한민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의 등재 여부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결정하며, 협약의 이행과 증진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회의 내용은 유네스코의 무형 유산 누리집 (<http://ichunesco.org>)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박용관기자

공주시, 제13회 웅진 묵림전 전시회

서예·문인화 프로그램 수강생들 작품 112점 선보여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고마 전시실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의 값고 묵은 실력과 열정을 담은 제13회 서예·문인화 웅진 묵림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종합사회복지관 서예·문인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값고 묵은 실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

보령발전본부,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보령발전본부(본부장 이덕섭) 제2발전소는 28일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한 제39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은 에너지 절감, 에너지신산업, ICT 수요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정책 참여에 앞장선 기업 및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산자부와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제2발전소는 에너지절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며,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감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도 에너지 절감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분야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부문에 도전하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

았다.

제2발전소는 500MW급 4기의 발전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3호기는 우리나라 최초 한국형 표준석탄화력의 효시로 국가 에너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최장 무고장 운전(6,000일) 달성중이고, 4-6호기 또한 각각 2,000~2,500일의 무고장 운전 달성을 앞두고 있다.

보령=이정복기자



한국도로공사대전충남본부·9개 기관 합동

설해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29일 오후 3시 서천공주선 부여백제휴게소(서천방향) 인근에서 도공 대전충남본부, 부여지사, 부여군, 고속도로소찰대 2지구대, 육군 8361부대 등 9개 기관이 합동으로 2017년 설해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인력 65명, 장비 30여대가 투입된 이번 훈련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과 재난대응 정보공유, 개선방

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집중폭설과 3중 추돌사고로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 권오철 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 상황에서 교통통제와 중대대 개구부 개방 등 신속한 구조구난 작업에 중점을 두어 훈련을 시행했다"며, "겨울철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한전 대덕유성지사 개소식 개최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9일 대전시 유성구계룡로 114에서 대덕유성지사 개소식을 가졌다.

한전 대덕유성지사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의원(대전 유성구), 허태정 유성구청장, 한전 박권식 상생협력본부장등 내외빈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선 현관 제막식과 Vision Tree 관수식,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행사 등이 진행됐다.

한전 대전충남본부 최익수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대덕유성지사 신설로 대덕·유성구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세종시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의 장 「여민락」정신으로 이어나갈 계획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29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8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

원 ▲우수 기획공연 등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활성화 ▲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혔다.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강

좌세종에서 예술하기, 숨은 기획찾기를 개설하는 한편, 워크숍·간담회·성과공유회 등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을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화향유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캠프를 국립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아트트랙', '무지개다리사업' 등을 진행한 점도 재단의 공공성과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강화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출범 초기 '시민과 더불어 즐긴다'는 취지의 「여민락(與民樂)」을 브랜드로 한 여민락아카데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와 여민락콘서트(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세종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김정환기자

한밭대, 청년드림대학 선정...대전·충남권 유일

취·창업 지원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이 대전·충남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2017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동아일보가 함께 실시한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선정된 것이다.

'청년드림대학'은 매 2년마다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역량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조사해 우수 4년제 대학을 선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청년드림대학 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 227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1차로 인적 지원, 물질 지원, 교육 지원, 취업·창

업 성과 등 4개 영역에 대한 역량 평가를 통해 상위 45개 대학을 선발했다.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4개 영역(인프라, 교육과정, 서비스, 네트워크), 12개 지표로 나누어 취업·창업 지원 역량을 종합 평가하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대면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 대학을 결정했다.

한밭대 대학인자리본부 남윤의 본부장은 "우리 대학은 최근 직무역량을 중시하고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원하는 취업트렌드에 맞추어 대학내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이번 청년

드림대학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취·창업 수요자인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취·창업 지원의 거점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밭대학교는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인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대학인자리본부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관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취·창업 지원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50여종의 다양한 진로,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지역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 진행

당진시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은 지난 28일 오후 한 해 동안 나눈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CGV 당진점에서 '2017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을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이종윤 시의회의장 비롯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영화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병하 관장은 "한 해 동안 지

역사회 곳곳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4,400명의 자원봉사자와 380명의 후원자로 인해 올해에 대한지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지원과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지원 등을 진행해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이 더 커지기를 바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 위반사항 적발

금강유역환경청,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0개소 점검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곳에서 13건(위반율 60%)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고 5개소를 고발한 바 있다.

*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 비산먼지, 불법 소각, 고유황 불법 연료유 사용)

또한, 점검대상은 환경청(제조업과 지자체(건설업)간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아적종인 모래에 방진덮개를 미설치한 사업장과 수송차량의 세륜을 미실시하며 운영중인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특히,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사업장 등이 적발되었으며, 점검결과 사업장에서 간단히 조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위반율이 60%에 달했으며, 매년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청은 점검 사후조치로 고발대상 사업장 8개소는 지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적발된 12개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조치가 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0월 이후 중국의 난방 등으로 국내 대기질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전통시장 CCTV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세종특별자치시(본부장 채수홍)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세종 전통시장에 화재를 조기 감지하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화재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119신고가 없어도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불꽃, 연기 발생 시 알람 및 영상신호를 119종합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전통시장 CCTV에 영상분석 화재감지시스템을 보강하여 설치했다.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화재 모니터링 감시가 가능해져 시장 질서 및 상야 취약시간대 화재 발생시, 발화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정환기자

박동관기자



당진소방서, 관내 공단지역 및 위험물 취급업체 일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단속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당진 관내 공단지역 및 위험물 취급업체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불법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인시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의 법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신입생 선발 위한 수시2차 원서접수 결과

대전과기대, 수시2차 평균 10.7대1

2018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은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2차 원서접수 결과, 평균 10.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전과기대가 11월 28일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2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원내 288명 모집에 3,069명이 지원한 가운데 소방안전관리과가 40.3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물리치료과가 28.4대1, 컴퓨터공학&그래픽과 24대1, 보건복지과 22.5대1, 피부보건과 19.5대1, 치위생과 1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올해 신설된 전기과는 2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전과기대는 11월 30일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홍성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위기가정 지원 사례 발표회 가져

홍성경찰서가 28일 하광학 부군수, 우길동 교육장, 경찰발전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위기가정 사례 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수 여성청소년계장이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로 이들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례 등 위기가정 지원 우수사례를 현장사진 등과 함께 발표했다.

하광학 부군수는 "각종 복지지원체계가 현장에서 더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더 자주 만나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질환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유관기관단체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홍성=김정환기자



금산소방서, 산악위험지표판 및 간이구급함 일제정비 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겨울철을 맞아 등산객 조난 등 고립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산인 직악산 등 4개소 산악위험지표판 14개 및 간이구급함 9개에 대해 일제 정비·점검을 실시한다.



예산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예산경찰서(서장 이재승),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지난 28일 오후 더센트럴웨딩홀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계·팀장,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및 장학금 대상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찰발전위원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태안해경, 새내기 바다 지킴이 현장 배치 태안해경(서장 정태경)이 바다 지킴이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입 해양경찰관 23명을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배치하였다고 29일 전했다.



대전보훈청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거행 지난 29일 오전 11시 호텔OC 크리스탈볼룸에서 해외파병용사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 김택수 대전시부시장,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이명하 505여단장, 월남전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훈단체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배방 남·녀 의소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아산소방서 배방읍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홍성만·여성회장 장옥순)는 지난 27일, 배방 19안전센터에서 김득근 아산소방서장을 비롯 배방읍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 및 각 대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부여소방서 '훈련도 실천처럼' 가상화재 출동훈련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8일 오후 3시 홍신면에 위치한 장수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 6대와 14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돼 실전과 같은 화재진압 훈련이 진행됐다.

6개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일부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실시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 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달 1일부터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경공사에서 지적된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와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 제보된 병원업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서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며, 감독기간은 새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에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감춰왔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청양경찰서, 2017년 체감안전도 충남경찰청 1위

주민 대상 실시하는 치안 안전 대한 체감 안전도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안 안전에 대한 2017년도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충남경찰청 15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청양서가상·하반기 모두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배경에는 금년 초부터 '미소가 먼저'인 다. 따뜻한 청양경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을을 찾다니며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방법 등을 홍보하고 주민의 치안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이공민원실 미소드림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 약자 187가구를 선정하여 순찰 활동 시 안부를 확인하고 타지에 있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다솜누리 돌봄 서비스와 순찰 활동 중 도로에서 노인 통행인 발견시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를 도와주는 안심귀가서비스 역시 체감안전도 향상에 한 몫 하였다.

최일선의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각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협력한 주민 눈높이 공동체 치안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청양경찰서 남경순 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과 군민 가까이에서 공감 받는 치안 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양서 경찰관 모두가 일심동체로 노력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청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보건소,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나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및 확산방지 위해 각별한 주의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인플루엔자의 본격 유행 시기를 맞아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내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인플루엔자(제3군 법정감염병)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 B형) 감염으로 발병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2월에서 이듬해 4-5월까지 유행한다.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감기'와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감염력이 매우 강해 학교 등의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난다. 집단시설은 인플루엔자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시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으로는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건강한 학생, 성인 등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할 것 ▲시설 내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것 등이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진단 받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거나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으로 회복 후 48시간이 지나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정상적인 등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시설에 홍보하고 필요 시 개인위생 실천을 위한 건강영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도 관련 예방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성인 81.6% “남에게 속마음 털어놓기 어려워”

<인쿠르트> 20대 가장 큰 고민 ‘취업’ · 30대 ‘직장과 직장동료 관한 고민’

오늘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용과 주거, 노후불안이 상시화되면서 '위안'과 '안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회가 됐다.

하지만 취업포털 인쿠르트대표 이광석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의 상당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이겨내려는 경향을 보이며,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스스로 이겨내는 편(39.4%)이라고 답한 비율은 61.3%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평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에게 평소 위로 받고 싶어하는 요인들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입력하게 해 연령대별 주요 키워드를 묶어봤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취업'으로 모아졌다. 취업/진로에 대해 언급한 20대 응답자의 비율은 36.7%로 그 어떤 연령대의 고민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적 고민'에 이어 '기타' 응답자와 '직장생활'에 대해 언급한 응답자는 각각 15.8% 가량 나타났다. 이중 20대 응답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30대는 '직장과 직장동료'에 대한 고민(33.3%)이 가장 많았고, 17.9%는 '경제적 고민'에 대해 위로를 받고 싶다고 했다. "미래 경제 사정이 불확실하고, 자기주책 마련 등 현재의 경제적 버거움"을 위로 받고 싶다고까지 털어놓은 직장인도 있었다. 하지만 30대 응답자의 14.3%는 '취업/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해, 30대들 역시 취업난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내비쳤다.

40대의 고민 역시 '경제상황'(20.8%)에 있었다. '직장생활'(16.7%)과 '인간관계'(14.6%)에 대한 고민도 그 다음을 이어

30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5~60대 성인들에게서는 의외로 '취업'(각각 26.7%, 35.7%)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다.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나 '고독'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는 입장이 49.2%로 가장 높았고, 약간 그렇다는 입장이 32.4%로 나타나, 무려 81.6%의 응답자가 마음 기댈 상대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이정복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만족도 최고

대전교육청, 만족도 지난해 비해 5.5% 상승...참여 학생 2배 이상 늘어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0월까지 초·중·고 30개교(초 12개교, 중 12개교, 고 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의 만족도 조사 결과 90.5%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 지난해 85% 만족도에 비해 5.5%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30개교의 참여인원은 9,945명으로 지난해 4,015명에 비해 5,930명이 공연을 감상했으며, 2배 이상 학생의 혜택을 늘어났다. 이는 학교급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고, 듣는 연주회에서 공연단체와 함께 직접 무대를 꾸며 나가는 합동 무대로의 전환으로 학생들의 참여와 효용을 이끌어 낸 덕분

으로 분석된다.

특히, 음해 초·중학교는 현악양상블루즈와 관악오케스트라 브라스밴드코리아가, 고등학교는 대전시립합창단과 연계해 인문학과 합창음악을 접목시킨 '노래하는 인문학 레미제라블' 프로그램을 기획해, 책을 통한 사고력·통찰력 개발과 합창을 통한 감수성까지 길러주는 등 맞춤형 연주회를 기획했다.

한편,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역 사회 우수한 예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예술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연수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화천)은 29일 금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3명의 관내 특수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사들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과정의 재구성, 개별화교육 과정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홍성 내포유치원, 환경캠페인 펼쳐



홍성 내포유치원(원장 지경옥)이 28일 내포유치원 주변 및 바깥놀이터, 실외 텃밭에서 환경지킴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체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우리 유치원 및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과 책임감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아들은 환경지킴이 피켓을 들고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아요", "환경을 보호해요.", "자연을 사랑해요." 등 캠페인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 유치원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위 비닐봉지에 담아 정리 했다.

홍성=김정환기자

‘빛뜨란미션인증 우수학생 일본 연수’

공주생명과학고, 빛뜨란미션인증 우수학생들에 해외연수 실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박광운)는 2017 빛뜨란미션인증 우수학생 14명을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빛뜨란미션인증'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 오사카 부립 농예고등학교 ▲ 오사카 부립 대학 식물공장 ▲ 모쿠모쿠 ▲ 니시키 시장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농업교육 및 6차 산업의 현황, 전통 문화재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계기를 갖고 있다.

빛뜨란미션인증제는 2014년도부터 시행해 온 공주생명과학고만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전공기능, 인성함양, 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 등 5개 분야에 미션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학교장 인증을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주=정상범기자

2018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회

천안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 대상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복)은 11월 29일 충남교육청의 '찾아가는 2018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회'가 천안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직접 참석하여 학생중심의 충남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2018 충남교육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2018충남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이 있었으며, 2부는 교육감과의 대화시간으로 일선 학교장(원장)과 교육감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의 응답 및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지역별 교육현안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의 일선학교 파급효과와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채기범기자

‘2017 해나루 수업 성장의 달’ 운영 성료

당진교육지원청, 관내 120여 명의 교사들 참가 · 총 6개의 분과로 진행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소통과 성찰이 함께 하는 해나루 수업 성장의 달' (이하 수업 성장의 달)을 운영,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 성장의 달은 관내 12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 총 6개의 분과로 진행됐다. 6개의 분과는 함께 고민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업 교사, 수업 성장을 위해 성장하는 수업 코치 교사로 구성되어 한 달간의 수업 성장 과정을 공유했다.

수업 성장의 달은 수업 코칭을 위한 '사전 준비', 교사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만남의 장',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는 '나눔의 장',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공감의 장' 4단계로 운영됐다.

'준비 단계'에서는 수업에 대한 고민과 수업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내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코칭'에 대한 원격연수, '만남의 장'에서는 전체적인 일정 안내 및 분과 리더교사, 수업자에 관한 소개를 한 뒤 분과모임이 실시됐다.

'나눔의 장'에서는 분과별로 수업코칭 → 수업 나눔 → 수업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함께 성장하는 좋은 수업을 위한 나눔이 이루어졌다. 수업 코칭을 위해 주제에 대해 분과별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마지막 '공감의 장'에서는 수업 성장 축제가 열렸다. '좋은 교사 수업코칭연구소'의 이규철 소장의 격려와 위로의 힐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며, 한 달간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던 교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2018 신입생 모집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및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활동과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집대상은 대전 관내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국어, 영어, 수학), 전문체험활동(우쿨렐레, 실험과학, 공동체놀이, 스포츠 등), 자기주도, 자기개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방법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042-480-1680-1) 상담 후 방문하면 된다.

송병기자

‘세종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세종시교육청, 2017년 제2회 세종교육정책 포럼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교육 5년 진단과 미래교육 발전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29일(수)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타시·도 교육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제2회 세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은빛초등학교 6학년 최예지 학생이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라는 주제로 자신이 꿈꾸는 세종 미래교육에 대한 발표로 막을 열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미래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미래교육은 한 아이 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이주희 서기관이 '세종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5명의 토론자(학부모·교사·교감·시민·교육전문가)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토론자와 방청석 참여자의 질문과 교육청 간부들의 즉석 답변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세종교육 5년을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맡겨줌으로써 한 아이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온주복지관 · 온양초 ‘어울림’ 장학금 전달



굿네이버스 온주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채종병은 지난 23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 지원사업인 주민조직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동아리 '어울림'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온양초등학교(교장 이은화)에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주민동아리 '어울림'의 자체기획 사업 중 하나로, 60세 이상 '어울림' 주민들이 손수 수세미, 휴대폰 가방, 모자, 목도리, 인형 등을 뜨개질 하여 연 3회 나눔바자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된 어울림 장학금은 총 60만원으로, 온양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학교로부터 추천 받은 저소득 가정 아동 6명에게 10만원씩 총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산=리량주기자



예산교육지원청, 학부모 인권 감수성 교육 및 인문학 아카데미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정근)은 지난 28일(화) 오전 10시부터 건강한 자녀성장을 위한 학부모 인권교육과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7회기로 교육청 시청각실에서 예산관내 유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특 정 ●

결핵 퇴치 성금 기탁증서 전달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30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초등교육공무원 평정관련 교감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최고신 세종시교육감= 30일 오후 3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리는 '2017년 11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

제4회 정기연주회



김석환 홍성군수= 30일 오후 7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구름밍 품의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에 참석.

현안사업 현장 점검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30일 오후 2시 부여군 백제문화단지에서 민간위탁 현황 청취 및 현안사업 현장 점검.

충남관광 세계화 5개국 사례서 찾는다

도, 관광정책 공유·이를 토대로 충남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아시아 5개국의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충남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충남도는 29일 덕산리조트캐슬에서 아시아 5개국 관광 전문가와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충남관광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궁영도 행정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외래 관광객을 충남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충남관광포럼이 그 해답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1회에서는 아시아 5개국의 관광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한·중·일·말레이시아·카타르의 관광정책과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국가 간 관광교류 방안을 찾기 위한 장이 열렸다.

마케팅과장이 한국을 대표해 '충남의 관광비전 및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설 과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충남관광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발굴 및 체류숙박시설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 아비나시현청 코바야시 에리코씨가 일본 정부와 아비나시현의 관광정책을 설명하고 여행자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다국어 표기 등 환경정비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중국 북경 우시안 국제여행사 조휘(趙偉) 대표이사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국가 및 중국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자어 표기와 통역 서비스 등을 주문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규원 미래전략 연구원과 카타르의 모하메드 엘 부시키 교수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과 할랄 음식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스마트 충남관광'을 주제로 한 제2회 색션에서는 중부대 박정하 교수를 좌장으로 다양한 관광전문가들이 모여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우선 상명대학교 김상현 교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역사문화와 가상·증강현실을 접목한 '백제역사문화상상유지' 건설을 제안했다.

이덕범 도고과라디스 지점장은 '온전한 관광분야 융복합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하면서 체류형·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재생을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끝으로 안용주 선문대 국제레저관광학부 교수는 민간 관광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관광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관광정책을 살펴보고, 융복합 콘텐츠 확보를 통해 충남 관광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안들을 토대로 민·관·산·학이 협력해 충남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호응

예산군이 올해 2월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한 발열의자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추운 겨울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신성아파트(보건소 앞), 쌍송배기, (구)산업대 앞, 예산역 승강장 4개소에 발열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농어촌버스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업으로, 군 관계자는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했을 때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군은 기존에 설치한 발열의자에 대한 버스 이용객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승강장 이용객수와 어르신들의 이용률 등을 전제적으로 고려해 3~4개소를 선정해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승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자동문을 설치했다. 예산역, (구)산업대 승강장은 자동문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닫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등 수요 중심의 버스 승강장 환경을 조성했다. 쌍송배기 승강장은 올해 안에 자동문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예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안전한 버스 승강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열의자는 기존의자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내부에 열선이 설치되어 자동으로 의자를 가열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다. 발열의자 작동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발열의자는 외부온도가 17°C이하로 내려가면 의자에 장착된 열선을 통해 자동으로 열이 가해져 최고온도 37°C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됐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모집 행정업무 경험할수 있는 기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겨울방학 동안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행정인턴(아르바이트)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50명이며, 지원은 공고일 기준(29일) 공고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거나, 세종시의 지역 거주자 중 세종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우선선발(가군·나군)과 일반선발로 나눠 모집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곳에 지원하면 된다.

우선선발 '가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본인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되며, '나군'은

시정활동 참여자봉사활동 35시간 이상 참여자, 정책이카데미 5회 이상 참석자가 해당된다.

일반선발은 본인 또는 부모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이나 세종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가능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세종시청에서 시행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의 지원은 제한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이고, 주 5일 동안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근무하며, 15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원 희망자는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12월 12일 최종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군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예산군 지진대피소는 어디일까? 군은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실의 대피소 39개소에 실내 대피소 3개소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실의 대피소는 높은 건물이 없고 넓은 공터인 곳으로 예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 읍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지정됐다.

실내 대피소는 예산초등학교 강당, 삼곡국민체육관, 삼곡읍복지회관 3개소다.

지난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최근 서해안 쪽에도 지진이 발생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군에서는 지진 대피장소를 홍보해 지진 발생 시 신속히 대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지진대피소를 게시할 뿐만 아니라 대피소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진대피소 41개소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표지판은 가로 1.5m, 세로 0.75m 크기로 제작되며, 항공물질을 입혀진 노란색 바탕에 대피소 안내문을 넣어 주민들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지판은 12월 초 건물 입구 및 외벽 등 모든 대피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에 안내했다. 실의 대피소는 이전에 완료되면 설치한다.

또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정보 포털 안전디딤돌 앱도 홍보하고 있다. 안전디딤돌 앱은 이번 지진 발생과 같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재난문자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근처 대피소를 조회할 수 있는 등 재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이다. 수신동의를 할 경우 재난발생 시 재난문자를 즉시 수신할 수 있어 빠른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재난에 대한 행동요령 숙지여부, 재난사실 인지여부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전디딤돌 앱과 같은 재난안전정보 앱을 설치해 활용하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홍성군, 세외수입 정리 부서 간 머리 맞대

2017년 징수대책 보고회

홍성군은 29일 오전 10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2017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하광학 부군수가 주재로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연초에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세수 확충

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월 체납액 1,809백만 원을 징수하여 충남도 설정 목표액의 93%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징수여건의 어려움이 많지만 납부전화를 적극고지서를 발송 연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에는 변호관 영치, 관허사업제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납차량 전국 변호관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변호관 영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키로 했다.

홍성군 하광학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에 수입원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서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정환기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순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2%의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는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40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4.72km의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이용 중인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

와 연계되어 오정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 신호 없이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 간 이동시간이 약 15분 단축될 전망이다.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오정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전천·증평 등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행복도시와 중·북부권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의 주요 공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병천천교(400m)'는 11월 말까지 상부 슬라브 타설이 완료될 예

정으로 2019년 하반기에 도로가 개통되면,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쌍청교'와 함께 '병천천'을 횡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인근 주민들의 왕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일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최대한 조기 개통하여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Large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modern houses and text in Korean and English. Includes contact info: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in71456@hanmail.net.

동정

2차 본회의



복기왕 아산시장=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아산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연 대전시장= 30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일 차)에 참석.

기념식



한상기 태안군수= 30일 오후 2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료식



이석화 청양군수= 30일 오후 2시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2017년 노인건강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교육 청양군,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 등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8일 군 보건의료원에서 가족방역 담당자 및 살처분 인력, 인체감염대응반 등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 50여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군 보건의료원 김사현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경로 및 예방법과 항바이러스제 투약지침, 인체감염대책반의 역할과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수 안전수칙을 주시시켰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시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보호복 착용·탈의를 시연하며 꼼꼼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조기 발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의료원, 산림축산과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의 사체를 만졌거나 살처분 참여 후 10일 이내 38°C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청양군보건의료원(940-452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가장 중요하게 방법으로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지체 ▲애완동물과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금지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닭, 오리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을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등 일상적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 제3회 지방정부회의 태안군서 열려

지난 28일 한상기 군수 등 15개 지자체장과 안희정 도지사 참석

충남도와 충남 15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가 태안군에서 개최됐다.

태안군은 지난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주관 '제3회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제2 국무회의(자치분권 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 실천모델이자 도-지자체 간 상시소통 채널로,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지난 7월 충남도 및 지자체가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

의한 이래 두 차례 개최됐으며, 올해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 등 국가적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내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태안군에서 3회 회의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개회사 및 한상기 태안군수의 환영사에 이어 ▲가족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태양광발전시설관련 민원 해소 방안 등 안전법 논의가 진행됐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등 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수렴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가족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안전의 경우, 최근 잇따르고 있는 A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미이행 및 소독시설 미설치 농장

집중관리 ▲축산농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족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시·구제역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허가 취소(영양정지) 등 실질적·구체적 논의가 진행됐으며,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방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발전사업과 개발행위허가권자 일원화 ▲발전사업 허가 시 관계법 이종 검토 등의 사항이 논의되는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코로 뜻을 모았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정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정부회의가 도와 시·군 간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추후 회의 시 군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적극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정부의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충남도 및 지자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6만 4천여 군민의 행복과 태안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방정부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당진 대표 브랜드 떡은 '썩 왕송편'

당진지역 8개 떡집·공동 레시피 개발 완료

당진지역의 중소기업 8개 떡집(민속떡집, 새마을 떡방앗간, 떡마을 송아 떡집, 대호 떡방앗간, 금암 떡방앗간, 비단 떡집, 고궁 떡방, 당진 떡집)의 장인들이 모여 창립한 '당진시 썩 왕송편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개발한 '썩 왕송편'이 주목받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해당 8개 떡집들은 지난 6월 13일 '당진시 썩 왕송편 협동조합'의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진 뒤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썩 왕송편의 표준 레시피 개발에 나섰다.

이후 한 달여에 걸쳐 레시피 개발을 완료한 이들은 지난 9월 8일 당진시청에서 시사회와 품평회를 가진 후 상호당진시 썩 왕송편 협동조합의 상표(떡 있는 사람들, 해시쿠) 출원 등록도 마쳤으며, 이달 23일에는 개발 결과 보고회를 갖는 등 썩 왕송편의 브랜드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공동 레시피를 적용해 만들어지는 떡들은 앞으로 협동조합 소속 8개 떡집을 통해 같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특히 떡에 들어가는 주재료인 쌀은 당진쌀을 전량 사용하고, 썩도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당진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농업경영의 달인' 양성

2017 청양농업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발 맞춰 전문 농업경영인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선도 그룹 양성을 위해 추진한 2017 청양농업최고경영자과정(야간)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 22일 개강해 11월 21일까지 25차시의 밑도 있는 교육으로 운영돼 29일에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올해 최고경영자과정은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주관으로 농업(6차산업)의 흐름에 맞춰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농업 최고경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됐다.

각 분야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해 농업유통, 농업마케팅, 농업혁신, 농업경영 현장실습 등 4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과정에 성실히 임해 공로상을 수상한 박상현씨(청양읍 식물원길)는 "농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농업이야말로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농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고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석화 청양군수는 축사를 통해 "넘버원 청양, 부지농촌 만들기를 위해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송악면 직원 청렴교육 실시

아산시 송악면(면장 이기석)은 지난 28일, 민원종합상담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먼저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업무적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경험한 청렴사례 등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석 면장은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청렴의 대명사인 고블 명사성의 정신을 본받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원 모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랑주기자

당진 외곽지역 도로망 확충·교통체증 개선 기대

지방도 633호선 개통 이어 도시계획도로 확대



올해 당진 도심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신설되거나 확충되면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신속한 수

송이 기대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IC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633번 지방도가 지난 8월 개통한데 이어 당진시내

구간을 관통하는 국도 32호선에 대한 외곽도로 차선 확장공사 1단계 구간 공사도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악읍 반촌리 당진 IC부터 송산면 유곡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7.58km, 왕복 4차로 도로인 지방도 633호선은 일명 '현대제철로'로 불린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송산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물론, 송악읍 기지시리에서 현대제철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이동시간도 대폭 단축됐다.

또한 기존 지방도 633호선과 당진 시내를 연결하는 롯데마트~송산 간 도시계획도로(당진대로 1-102호선)가 마무리되면 당진 도심과 산업단지를 오가는 근로자들의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60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 도로는 이미 지난해 롯데마트 당진점부터 농업기술센터 입구 삼거리까지의 약 660미터 구간은 부분 개통됐으며, 송산면 금암 삼거리까지의 잔여 구간(540미터)에 대한 2단계 공사도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한편 국도 32호선의 당진 시내 구간(탑동교차로~하이마트 당진점) 상향 방향을 2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탑동교차로 인근 중앙맨션부터 원당 주유소까지 1km 구간을 기존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도 32호선 탑동교차로부터 당진 산업단지 사거리까지 약 5.7km를 우회하는 도로를 제5차 국도·국지도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온양4·5동 국토 공원화 사업

아산시 온양5동(동장 심흥섭)이 28일 꽃양배추 보식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국토공원화 사업 일환인 도시녹화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을 마무리 했다. 도시녹화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관내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심흥섭 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관내 기관·단체 회원들이 앞장서 꽃길 및 녹지구간 환경정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관이 하나가 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온양5동을 만들자"고 말했다.

온양4동(동장 홍영준)에서 지난 27일부터 28일, 이틀에 걸쳐 겨울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센터 앞, 실옥로 사거리, 방죽동 타이어 화단, 특산동 대형 화분 등에 1꽃양배추 1300본을

식재했다. 꽃양배추는 겨울 추위에도 잘 견디며 푸름을 유지하는 꽃으로써, 온양4동의 겨울 경관을 생기 있고 다채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준 동장은 "이번 꽃양배추 식재를 통해 겨울철 황량하기 쉬운 시내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석화 군수는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청양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쾌적한 위생환경, 친절한 미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청양군 위생업소 CS(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9일 읍·면·동·축박업 등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방문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다시 찾고 싶은 청양으로 기억이 남도록 최고의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실시했다.

이날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 강사를 통

해 ▲고객만족 서비스 방법 ▲위생 서비스 매너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법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고객 불만 응대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한 감동극복방법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사랑의 노래' 등 4곡의 신작가곡에 이어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등 초청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지며, 김건모의 '첫인상', 남진의 '넌과 함께', 동방신기의 '마련의 성'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요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베미제라발', '지킬 앤 하이드', '사운드 오브 뮤직'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 뮤지컬의 주제곡들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끈다.

입장료는 무료로 예매 없이 선착순 627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041-670-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군립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연다

12월 7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겨울밤 수놓는 아름다운 선율



태안군립합창단(단장 김현표, 태안부군수, 상임지휘자 차정식)의 '제1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군민들에게 뜻깊은 연말을 선물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신가곡과 뮤지컬의 만남'을 주제로 총 47명의 합창단원과 테너 강우림, 소프라노 조영희, 체마 어린이 뮤지컬단 등 초청 음악인들이 겨울밤의 낭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는 '청산에 살리라',

우리/동네

계룡시-캐나다 센테니얼 대학 MOU체결

영어연수와 캐나다 선진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베트남 산업관광객 유치 공략 시동

부여군, 베트남 주요 여행사·언론사 등 20여명 초청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8일 베트남 산업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현지 주요 여행사, 언론사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백제문화단지, KGCS인삼공사 고려인삼장 등 관내 산업관광 쉼터를 실시했다.

이번 관내 산업관광 쉼터는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관광 설명회'에 참석하여 관광홍보를 실시한 부여군이 베트남 여행사와 언론사의 현지연락 및 관광지 소개를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군에서는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알려진 연꽃(베트남 국화) 마케팅을 위해 서동연꽃축제 홍보영상을 소개하고, 직접 공남지를 찾아 겨울에도 아름다운 공남지의 풍광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산업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숙박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테마여행 10선,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과 아울러 백제유적에 한정되어 있던 부여 관광지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과 5일시장 체험, 백미장 수상관광 그리고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객의 부여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관광은 부여의 문화관광 자원과 산업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부여군 소재 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잠재 관광자원을 발굴해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다.

부여=이정복기자

베스트 이·미용업소 5개 업체 선정

계룡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위생수준 향상계기 마련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지역 내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베스트 이·미용업소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이·미용업 등 위생관리 영업에 대상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해 법적 준수사항은 물론 고객 안전성과 서비스 질 등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해

▲일반현황 ▲법적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26개 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10개소(이·미용업 3, 미용업 7)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선정되었으며, 베스트업소는 이중업종별 업소 수의 10%이내에서 선정하였다.

시는 이번 선정된 이·미용업 1개소와 미용업 4개소 등 베스트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28일 업소에 베스트 업소 로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관리와 서비스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베스트 업소는 ▲미용업-청춘미장, 비사별 피부미용샵, 김채숙 스킨케어, 베일스토리 ▲이·미용업-김이영원 등 5개소다.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가 지난 20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센테니얼 주립대학(Centennial College)과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는 센테니얼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학문 교류, 교육과정 및 연구 협력, 영어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테니얼 대학(총장 Ann Buller)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최초로 설립된 주립대학으로 교육·경제·문화의 중심지인 토론토에 5개의 캠퍼스를 두고 160여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5만 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규모 대학이다.

특히 신학연계가 잘 되어있어 센테니얼 졸업생에 대한 고용주 만족도 95%, 한국학생 취업률 87%를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 최초로



삼상전자의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국적 기업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제교육 부문 최고 대학으로 선정되어 캐나다 최초로 연방정부에서 금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계룡시 학생들은 캐나다의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센테니얼 대학의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센테니얼 대학 관계자는 "자치

단체와는 처음 MOU를 체결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을 시정의 중점에 두고 교육 선진도시를 추구하는 계룡시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안일선 부시장은 "센테니얼 대학의 체계화·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선진화된 교육시설을 계룡시의 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계룡시를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2018년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으로 3월에 장학생 선발 공고하여 4월에 장학생 20여명을 최종 선발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센테니얼 대학에서의 영어연수와 캐나다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구분영 시장이 밝힌 2018년도 시장 운영 방향은 ▲ 좋은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로 살기 좋은 천안 구현 ▲천안을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따뜻한 복지 도시로 더 행복한 사회 구현 ▲건강하고 풍성한 문화·체육·교육도시 기반 마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첨단 스마트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 건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 등 7대 분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구분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 마중물만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겠다"며 2018년 시장 운영의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천안=채기병기자

구분영 천안시장 "더 큰 미래, 더 행복한 천안" 구현

29일 시의회 시정연설 통해 2018년 시장 운영 방향 밝혀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2018년 29일 구분영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성장으로 지역발전의 새지평을 열어 가는데 역점을 둔다.

구분영 천안시장은 29일 천안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러한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사부지 복합개발사업,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역점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더 큰 미래, 더 행복한 천안'을 구현하기 위한 총 1조 6,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구분영 천안시장은 "올해는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새 정부 출범 등 대내·외의 많은 변화 속에서 더 큰 미래에 대비한 대통령 공약 3건 반영, FIFA U-20 월드컵 성공 개최 등으로 천안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였으며,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장기현안과제의 합리적 해결과 지방채무 전액상환으로 시정의 안정과 재정건조성을 높여 주민의 행복을 한 발 앞당겼다"고 회고했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기능지구 SB플라자 착공, 콘텐츠 코리아랩 개소, 업성저수지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 공원 조성 사업 국비 확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서민 임대 주택 9,600여세대 보급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런 노력은 각종 기관평가에서도 인정받아,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3년 연속 인터넷소통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의

논산시 'Youth Festival' 열려

공연발표·작품전시 등 화합하는 축제의 장 펼쳐져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2월 22일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2017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발표회 'Youth Festival'을 개최한다.

'Youth Festival'은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문화교양강좌 수강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올 한해 체험하고, 배우고 익힌 활동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는 열정 넘치는 화합의 장을 열고자 마련했다.

1부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사랑꽃달반

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2부에는 성장댄스, 비버리믹스, 현악양상블을 비롯해 청소년 동아리 노래·댄스공연, 수화, 마술사 문태현 초청공연 등 즐거운 문화공연도 함께 열린다.

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과 로비에는 자유학기제, 문화교양강좌,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의 캘리그래피, 한국화,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발표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http://youthnonsango.kr)와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041-746-5926) 또는 평생교육과 청소년팀 (041-746-5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달부터 임시 개소 운영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은 다음달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100대 국정과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을 구성하고 업무공감 및 전문인력을 확보

해 치매고위험군 및 치매노인·가족상담, 치매초기검진 및 등록, 치매치료관리비 및 응급지원, 인식개선 및 교육 등 기본업무 수행한다.

서천군은 국비로 시설비 6억원을 지원받아 군보건소에 치매안심

센터를 임시 개소해 운영하고, 내년 4월 착공 후 12월 완공하여 정식 시설에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를 완공하면 등록 치매노인 1:1사례관리, 치매노인 단기쉼터 운영, 치매가족카페 운영,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서천=김태선기자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타들 논산 온다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논산에서 열린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에 따르면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타들과 논산 시민이 함께하는 'The 뮤지컬스타' 공연이 12월 7일 오후 7시 논산

건강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바다, 남경주, 윤희영, 멘토요코 스트라 등이 출연하는 이날 콘서트는 노트르담드 파리, 카르멘, 팬텀 등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주옥의 뮤지컬 음악으로 화려한 무대를 펼

칠 예정이다. 특히, One day more(레미제라블), 소녀시대 등 익숙한 곡을 인기 뮤지컬 스타들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뮤지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논산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겨울의 문턱에서 따뜻한 감동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1층 5만원, 2층 2만원(논산시민 및 사이버논산시민 1층 1만원, 2층 5천원)으로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arthall.nonsan.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정

보고회



구분영 천안시장= 30일 오후 2시 천안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기 시민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흥타령축축제 2017 유공자 시상 및 평가 보고회에 참석.

농업대학 수료식



황명선 논산시장= 30(목)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농업대학 수료식에 참석

관리자 교육



최홍욱 계룡시장= 30일, 오전 10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

리자 교육 참석.

시상식



노박래 서천군수= 30일 오전 10시 30분 농협중앙회 중앙본부본관에서 열리는 2017「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시상식에 참석.

시상식에 참석.

워크숍



이용우 부여군수= 30일 오후 1시 30분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지역맞춤형 특성화상권 육성 워크숍

에 참석.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소통 'UP'

부여군, 가족 갈등 예방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11월 8~24일까지 6회에 걸쳐 약 160여명의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관내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소통의 시간을 가져 가족 갈등을 예방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쿠키와 떡볶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간단한 요리 순서를 안내 받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저마다 솜씨를 발휘하며 맛있는 쿠키도 만들어 보고, 말랑말랑 재미있는 떡볶이도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은 "모처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좋았다"며 "자녀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일반 부모교육과 달리 요리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학부모와 자녀들의 호응이 더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정

시정공감 토크콘서트



오시덕 공주시장= 30일 오후 2시 농업회관에서 열리는 이·통장과 함께하는 시정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

머드토피아 축제교류전



김동일 보령시장=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열리는 머드토피아 축제교류전 참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30일 오전 9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명예퇴임식에 참석, 오전 10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대학 수료식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울 공공회관에서 열리는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자유평화수호탑 12주년 기념행사



박동철 금산군수는 30일 오전 11시 남산공원에서 열리는 자유평화수호탑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가정·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2017년 가정·성폭력 추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에 참석.

보령시 천북 거점소독 세척시설 준공

보령시는 29일 오전 천북면 신죽리 214-2에 위치한 거점소독소에서 김동일 시장과 충청남도 및 보령시 관계 공무원 축산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점소독·세척시설 시연회를 가졌다.

거점소독·세척시설은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을 위한 것으로 보령지역의 축산 밀집지역인 천북면 신죽리에 설치하게 됐으며, 국비 2억4300만원 등 모두 8억39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사업부지 매입, 건축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준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3,798㎡의 면적에 소독·세척, 사무실, 창고 등 184㎡의 건물 설비를 갖췄으며, 세차·소독·소독필증 무인 발급 등 전문 자동화 시설 도입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대응 및 타 지역으로부터 질병 유입 차단 등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현대·전통적인 시설 구축으로 구제역·AI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피해 및 지역 경제 위축 등 재난 수준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두산인프라코어, 토지매각 계약체결

충남 보령에 성능시험장 조성 추진

두산인프라코어가 충남 보령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성권 두산인프라코어 전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주면 개화리에 위치한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 예정부지의 토지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 2012년 투자약해각서(MOU) 체결 이후 2014년 입지 후보지 확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당초 협약에 따라 보령시가 두산인프라코어에 31만6681㎡의 토지대금 및 부대비용 등 모두 20억9397만 원에 매각하는 자리였다.

두산인프라코어 성능시험장은 성주면 개화리 산52-4번지 일원



에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내년 초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9년까지 29만9800㎡에 사무·연구동, 주행시험장, 신제품 및 양산품의 굴삭기, 로더 내구성 검증용 시험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특히, 성능시험장이 조성되면 직·간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관할인민산업단지, 웅천인민산업단지, 청라농공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성권 두산인프라코어 전무는 "성능시험장 운영을 위해 보령 지역민을 우선채용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등 보령시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건설기계 업계 세계 6위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보령으로 입주하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지역민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많은 관련 업계의 방면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두산의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수혜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성능시험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공주시,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모든 항목 적합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정수장 및 급수구역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미생물 3종,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11종, 유기물질 17종, 소독부산물 11종 및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 58개 검사항목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으며, 옥룡, 공주, 유구정수

장 3개소의 정수와 수도꼭지 12개 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무료로 수질검사 받을 수 있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인식을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이는 단순한 수돗물 공급에서 벗어나 고객 체험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돗물 음용률과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낙목 수도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군 진산관광홍보체험관 건립

천주교 박해사건·향토 역사문화 공간연출

금산군 진산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이 건립된다.

진산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향토문화진흥을 꾀하기 위함이다. 위치는 폐교된 진산면 지방리(구)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다. 이곳은 2015년 11월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금산군이 매입했다.

2016년도에 정부예산을 확보했

으며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6397㎡, 최고높이 8.05m다. 체험관 안에는 크게 진산사건 자료실과 진산관광홍보실 두 개 실로 구성된다. 진산사건 자료실(84.24㎡)의 경우 진산지역에서 일어났던 국내 최초의 천주교 박해인 신해박해를 소

개하고, 한국역사 속의 천주교를 재고증하게 된다.

관광홍보실(136.89㎡)은 행정구역의 변경이 잦았던 진산의 역사문화와 금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및 축제 체험 중심으로 구성·연출한다. 진산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탄압사건인 신해박해 발생지와 국가등록문화재인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육전 승전지이자 금산의 5대전투 중의 하나인 이치대첩과 충남도지정문화재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진산향교, 태고사 대웅전 등 많은 역사적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금산=전정만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조동희 작가초청 목조각초대전 개최 문화예술작품들 감상기회 제공



서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우리 지역의 저명한 조각가인 조동희 작가의 초대전을 갖는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초대전에서 조 작가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목조각 작품 20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나무의 특성과 재질은 물론, 조상들이 사용했던 도구 등에서 소재를 찾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주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조소 작가인 조 작가는 충청남도 미술대전 조소 심사위원으로 역임하기도 했다.

또 충남미술대전 특선4회, 충남교사미전 교육감상 20여회 수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산시 민공원과 서산종합운동장의 조형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서산=김정민기자

공주시새마을회 출산·육아체험수기 공모전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



공주시새마을회는 공주시의 후원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자녀 더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134개 관련 단체 및 기관에 홍보용 전단지 및 팸플릿을 배부했으며, 접수된 원고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 중순경 공주시 새마을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이숙현 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극 앞장서야 할 새마을가족들과 공주시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공주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더불어 공주시민인 구 늘리기 캠페인에도 적극 새마을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교육, 다문화생활터뷰 멘토교육 특강에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병배 기자

이야기 할머니 양성 과정 호응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옛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하는 '이야기교실'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행복증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시립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야기교실 강좌는 동화연구전문가 이현주 강사의 열띤 강의와 어르신 수강생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야기교실은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해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로 세대 간 소통 및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는 자긍심 향상 및 배움의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이야기 할머니들은 12월까지 우리의 전통문화 및 공주시 스토리텔링을 테마로 교구 제작 하는 과정을 추가로 배우게 되며,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 옛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오명규 시립도서관장은 "이야기교실은 어르신들의 재능나눔 및 독서를 통한 세대 간 소통 및 모두의 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운영되고 있다"며, "어느새 독서문화 활성화에 성큼 다가가고 어르신들에게는 책 읽어주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이야기 할머니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응진관(☎041-840-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군 내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예유

1인당 월 5→10만원으로 지급

금산군은 2018년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2017.11.30일자로 공포한다.

참전유공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애국지사 등 보훈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당은 2009년 최초 지급하였고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간의 인상으로 금산군에서 순

수 금비로 편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인상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인기

서산시-IBK기업은행 맞선

서산시가 충청권에서 최초로 IBK 기업은행과 손잡고 추진 중인 동반성장협력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기업은행에서

는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특히 시중금리보다 최대 1.3%에서 0.75%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드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32개 업체와 소상공인 19개 업체 등 총 51개 업체가 58억 7,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반년도 안 된 기간에 약 65%의 자금 소진율을 보이는 것으로, 당초 시가 1년에 50여개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한 것을 뛰어 넘는 결과다.

여기에 중소기업 5개 업체와 소상공인 4개 업체에 11억 3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 운영의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되고 있는 동반성장협력사업을 통해 서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오전 8시20분)



달님은 재실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녀의 누명을 벗고 감격스러워 한다. 선히는 지금 달님을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며 재욱에게 달님을 양보해달라고 하지만 재욱은 절대 안 된다며 화를 낸다.

전생에 원수를 (MBC오후 7시15분)

오늘부터 꽃꽃이 강의를 시작한 오나라라고 함

케이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OCN 오후 4시30분)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봉당정치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계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한다.

이에 허균은 기방의 취객들 사이에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을 발견한다.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하선.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은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하룻밤 기습 조이며 왕의 대역을 하게 된다.

왕이 되어선 안 되는 남자, 조선의 왕이 되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한다.

저자거리의 한낱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노릇을 시작한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어이름 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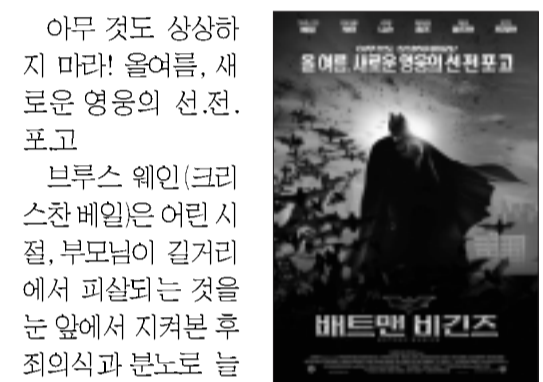
니다. 사라(김보라)와 태리(이상아)이 다니는 노래 교실에 나라(최수린)가 새로운 강사로 오게 된다. 한편 고아는 고봉에게 천만원짜리 모피를 준 남자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미워도 사랑해 (KBS1 오후 8시20분)



뷰티센터 메이크업 쇼가 성황리에 열리고, 행자(송옥숙 분), 정숙(박명신 분), 미애(이아현 분)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매력을 뽐낸다. 그런데 쇼가 끝난 뒤, 행자가 돌연 모습을 감춰 버리는데...

배트맨 비긴즈 (채널CGV 오후 10시30분)



아무 것도 상상하지 마라! 울어라, 새로운 영웅의 선전. 포고 브루스 웨인(크리스찬 베일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피살되는 것을 눈 앞에서 지켜본 후 죄의식과 분노로 늘 고통 받는다. 복수하고 싶은 욕망은 불타오르지만 명예를 지켜야 한다던 부모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악을 물리칠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고담시를 떠나 홀로 세상을 유랑한다.

적을 이기려면 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법! 브루스는 범죄자들의 소굴에 섞여 생활하며 그들의 습성을 터득한다. 그러던 중, 듀커드(리암 니슨)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나 정신적, 육체적인 수련법을 배우게 되고 듀커드는 브루스에게 어둠의 사도들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한다. 듀커드가 속해있는 어둠의 사도들은 동양계 무술의 달인 라스 알굴렌(와타나베)이 이끄는 범죄 소탕 조직. 그러나 브루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경책으로 응징하는 이들의 방법이 자신과는 맞지 않음을 깨닫고 고담시로 돌아온다. 브루스가 떠나있는 동안 고담시는 부패와 범죄로 파멸되어가고 있었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대전시티즌 '제 11대 사령탑' 고종수 감독 취임식

대전의 11대 사령탑으로써 공식행보 시작



대전시티즌 고종수 감독이 12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대전의 11대 사령탑으로써 공식행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1일 오전 10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인터뷰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고종수 감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공식행사 및 기자회견 등이 진행 된다. 이 자리에서 고종수 감독은 각오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 후에는 선수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가 마련된다. 1996년 수원 삼성블루윙즈에 입단하며 프로생활을 시작한 고종수 감독은 전남-대전을 거치며 총

17경기에서 3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 우승 2회, 아시아클럽컵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아디다스컵 우승 3회 등 수많은 우승컵도 들어올렸다. 대표팀 경력도 화려하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국가대표, 1998년 프랑스월드컵 국가대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등을 지냈으며 A매치에서 38경기 출전해 6득점을 기록했다. 2011년 대한민국 원삼성블루윙즈 U-18 코치로 지도자의 길에 입문하였으며, 수원삼성블루윙즈 트레이너, 코치를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다.

아산시립도서관, 책 읽는

가족인증서 및 현판전달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은 지난 28일, 송곡도서관에서 2017년 책 읽는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아산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6개 도서관송곡, 배방, 둔포, 남산, 어린, 당정온샘별로 1가족씩 총 6가족이 2017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책 읽는 가족'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으로 2016년 하반기까지 모두 13310가족이 선정됐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공공도서관에 가족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모범이 되거나,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며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족이 대상이다.

도서관장, 이용성실도, 가족 참여도, 문화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도서관마다 매년 1~2가족을 선정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책 읽는 가족' 선정이 널리 알려져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독서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랑주기자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새 사령탑으로 박동혁 감독 선임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안정·통합되게 만들어 온 것 높이 사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구단주 박기왕)은 2018 시즌을 이끌 사령탑으로 박동혁 감독을 선임했다. 박동혁 감독은 2002년 전북에서 프로로 데뷔해 K리그 통산 244경기에 출전해 22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맹

활약 했으며 은퇴 이후 울산현대의 스카우터와 코치로 지도자 경험을 쌓은 뒤 2017년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수석코치로서 전임 송선호 감독을 도와 플레이오프에 진출, K리그 챌린지 3위라는 우수한 성적과 함께 상이한 공격 팀의 특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선수들과의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안정되고 통합되게 만들어 온 것을 높이 사 감독이라는 중임을 맡리게 됐다. 청년 이순신의 고장인 아산의 이 미지와 겹맞은 K리그 최연소 지도

자의 선임은 2018년 시즌 성적뿐만 아니라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지상과제인 선수들의 기량 유지 및 향상을 도와 국위선양의 발판을 만드는데 있어 신임 박동혁 감독의 패기와 도전정신에 기대하고 있다. 전임 송선호 감독은 구단의 연장선 존경의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재충전의 시간을 원했으며 구단과 약속된 1년간의 계약을 마무리했다. 박동혁 감독 선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각 분야별 코치 선임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산=리랑주기자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소설 19세 낭독극 4회 공연

11월 27일(월)~28일(화) 이를 동안 고3학생 및 일반인 대상



충남도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소설 19세(이순원 원작)' 낭독극을 11월 27일(월)~28일(화) 이를 동안 고3학생 및 일반인을 대

게 되고,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의 청소년을 이해하도록 돕는 가족 소통극이다. 교과서 수록작으로 학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인 만큼, 공연 후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그간 갖고 있던 작품에 대한 의문점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더해졌다. 김용진 관장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낭독극이라는 공연을 처음 준비해 왔는데, 다양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부평생학습관 평생학습부로 (041-730-7713~5)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김동원 총재, 한남대에 500만원 발전기금 기탁



한남대 '창의적 개념설계 공모전' 개최



백석문화대 영유아보육·유아특수재활전공 'NCS 기반 교육 작품 발표회'



샘물두레박마을, 온양6동에 김장김치 전달



대전보훈병원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행사" 실시



청양군, 청양읍 읍장동우회 회의 개최

대전효문화진흥원·(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노인의 권익 신장 도모 등 상호 업무협약

대전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은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이철연)와 11월 29일 13시 30분에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2층 소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로효친 사상 함양을 통한 효문화 중심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것으로, 협약의 내용은 경로효친 사상 함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에 관한 상호 협조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능력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이다.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은 "1989년 창립이후 3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협약으로 효문화 증진을 도모하여 대전이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권익을 도모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순천향대, 창업아이디어 메이커톤서 '우수상'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최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한 "2017 대구경북 글로벌 벤처창업마당 '창업아이디어 메이커톤' 경진대회"에서 빅데이터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김한나(여, 24세)와 2명으로 구성된 팀이 '데이터 기반 IoT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경북지역 비즈니스에 참여한 고등학생이거나 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 저변확대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제품 형태로 구체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 데이터팀 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자동탐지 및 신고를 프로젝트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안전확보와 추가사고 예방을 돕는 각종 센서를 부착한 IoT기기를 차량에 부착하고 사고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리량주기자

김영자 당진시 평생교육새마을 과장 명예퇴직

40여년 몸담으며 '우먼 파워' 발휘



김영자 당진시 평생교육새마을 과장이 40여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 역사문화탐방과 행복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추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김 전 과장은 '우먼 파워'를 유감없이 발휘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과거 여성의 사회진출이 녹록지 않던 시절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여성 최초의 타이틀을 다수 만들었다.

김 전 과장은 1978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2015년 평생교육새마을 과장으로 보직받아 당진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당진시 평생교육의 기틀을 세웠다.

금녀의 벽이라 할 수 있는 총무과 인사팀장을 비롯해 대외지명장, 감사법무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 건강 성장지원 기관표창)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청소년 활동경진대회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 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 평생교육 네트워크인 유네스코 국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세계에 당진시의 평생교육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으며 자라나는

당진=최근수기자

서산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

청소년들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쌀 소비도 촉진 위해 마련



서산시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지역 5개 중·고등학교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서산시지부가 주관하고 서산시가 동참한 이 행사는 아침밥을 거르는 비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쌀 소비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아침밥의 건강함을 알리는 홍보물과 지역에서 나는 쌀로 만든 떡과 우유 등을 함께 나눠주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이완섭 시장과 이상룡 지부장은 서병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떡과 우유를 나눠주며 캠페인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완섭 시장은 "아침밥은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쌀소비 촉진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희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여명 참여

연탄나눔봉사로 사랑의 온기 전달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하 공단은)은 지난 28일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1004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연말이면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기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부 대상은 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 수급가정이다.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된 연탄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상조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가정까지 직접 연탄을 배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원식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연탄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내가 흘린 땀방울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이다"며, "1004개의 연탄 개수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천사로 다가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채기병기자



2017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설계부문

2017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

대전시새마을회는 29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17년 대전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택수 대전시장 무부시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5개 구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의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이웃과 사회에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성과보고, 대회사 및 축사,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유영숙 대전시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운동장, 양영자 대덕구새마을부녀회장과 이도현 새마을지도자동구성남동협의회장이 대

통령표창을 수상했고, 양승재 새마을지도자대덕구목상동협의회장과 김금자 동구가양2동새마을부녀회장, 김선화 새마을문고대덕구목상동분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6명, 대전시장 표창 14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14명, 대전시새마을회장 표창 10명 등 모두 50명이 올해의 새마을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한재득 회장은 대회사에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잡살기 운동'을 추진한 실적을 토대로 해 '우리 모두가 잡살기'는 공동체의 통합과 공존을 이끄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및 공동체 복원운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문화향기 가득한공주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세종시와 공주시 인근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토요일만 상영하던 토요일특별영화를 확대하여, 토요일 공연이 있을 경우 일요일에 가족영화관을 개최하는 등 매 주마다 박물관에서 공연과 가족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2월의 추위를 녹일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인 '나홀로 집에' 1.2 시리즈를 크리스마스 전 주에 상영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중장년층에게도 인기 있는 영화 '황성탈출' 1.2 시리즈를 상영할 예정이다.

12월 주영화로 9월(14시)에 전통문화와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퓨전 뮤지컬 '춤향전' 공연이 있다. '춤향전'은 한국 무용과 비보이, 트론댄스, 판소리, 디제이 그리고 비트박스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버라이어티 뮤지컬이다.

그리고 23일(14시, 16시)에 공연하는 '소리동화'는 하나의 고전동화만 다룬 게 아닌, '심청전', '호랑이와 꽃길', '별주부전', '햇님과 구름', '피리부는 사나이', '금고개 은도끼'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 작품으로, 뻔하지 않으면서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드벤처 뮤지컬이다.

공주=정상범기자

기고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함께 살린 바다, 다시 뛰는 해양경찰

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한순간에 생업 터전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전국에서 물러든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사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해는 다시 본래의 청정 지역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의 해양재난 대응 역량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태안 유류피해 사고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총괄지휘를 하게 됐다. 해양경찰은 방재대책본부로서 해양오염사고 대비와 대응을 맡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양수산부는 예방과 복구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

대규모 오염사고시 초기 7일 동안 대응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자재 확보했으며 대형 유조선 출입이 잦은 울산, 대신, 광양에 방제비축기지를 설치했다.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양오염사고현

장 경찰이 풍부한 대원들을 동원, 서해, 남해 특수구조대에 배치시켰다. 해양오염 방재장비와 기술을 국산화 하기 위해 6개 과제에 6년간 360억을 투입해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해양경찰이 각각 운영하던 해상교통관제(VTS)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해양오염물질 유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67건, 유출량은 590㎩였으나, 2016년에는 264건, 277.7㎩로 유출량으로 볼 때 53%나 감소했다.

한편, 국제적인 선박 연료유 기준 강화로 현재 중질성 연료유에서 앞으로는 경질성 연료유나 액화 천연가스(LNG)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화학물질운반선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화학방제정도 건조 중

에 있으며 완공되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많은 울산과 여수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안전 확보와 우리 해양영토 안에서 강력한 주권 확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부활했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원에 부응하기 위해 바다 안전에 관해서는 내일로 머무지 않고, '오늘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인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3000여 명의 해양경찰은 전국의 바다를 누비며 해양경비·안전·해양치안·오염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안의 기적을 돌아보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사설

반려견 관리 철저히 해야

사람이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00건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주로 얼굴을 다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반려견 물림사고는 2015년 1488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1~9월)는 116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사고 건수(1168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2건 대비 약 62% 급증했다.

위해감시시스템은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사고 건수를 파악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며 실제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의 상해 부위가 이 사고에 대한 우려감을 높인다. 소비자원이 3675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만 14세 이하의 상해 부위 1위는 얼굴(39.7%)이다. 이어 손(30.8%), 다리(16.2%) 순이다. 청소년과 성인이 손(40.2%)을 가장 많이 다친 상황과 대비된다.

어린이의 상해 부위가 이 사고에 대한 우려감을 높인다. 소비자원이 3675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만 14세 이하의 상해 부위 1위는 얼굴(39.7%)이다. 이어 손(30.8%), 다리(16.2%) 순이다. 청소년과 성인이 손(40.2%)을 가장 많이 다친 상황과 대비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반려견의 물림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인식표 미부착, 미안전조치 사례가 3회 적발되면 각각 20만원, 10만원 부과된 과태료 50만원까지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소홀이 인명사고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유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폐지 줍는 노인' 복지대책 시급하다

한국의 취약한 복지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은 노인 빈곤이다. 그것의 상징으로 거리에서 폐지원을 수집하는 노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폐지 1kg당 100여 원에 불과하지만,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들은 이 겨울에도 위험한 길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식적인 취업이 아닌 만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경남도 실태조사에서 올해 9월 기준 도내 폐지 수집 노인은 167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8%로 16.9%에 그쳤다. 나머지 83.1%는 절대 빈곤선을 벗어난 노인들이라기보다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 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 줍는 노인 중에는 85세 이상도 136명(8.1%)이나 되었다. 또 노인들의 하루 수입은 3000~5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지원과 직접적인 생계 지원이 노인빈곤의 대책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뒷받치는 여운을 '필름'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은 노인이 혼자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형식적이거나 시중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도내 시군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동안전지킴이 일자리의 경우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 주도형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되 노인이 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빈곤노인이나 장애인의 복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손꼽힌 부양의무자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에 한해서 그것도 내년 10월에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복지 정부를 표방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기초연금의 획기적 인상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인빈곤만큼 시급한 문제는 없다.

기자 수첩



김정환 정치부 기자

대전시 간부공무원 기강해이 심각하다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대전시의회에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유승병 환경녹지국장한테 정기현 의원(유성3·덕민주)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실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유 국장은 "실망하십니까"라고 답변하며 고성어 오가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또한 27일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동섭 의원(유성2, 덕민주)이 김영호 상수도본부장에게 "답변을 거짓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하자 김 본부장은 "그럼 어떻게

답변하느냐"며 뚱뚱스럽게 대답했다.

이처럼 대전시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상대로 불성실한 답변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전시의회 K의원은 "시장이 낙마해 시장리더십이 실종됐다고 해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직기강에 앞장서야 할 간부공무원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번일과 연루된 대전시 간부공무원과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28일 만나 답변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은

로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더욱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원님들을 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일과 같이 언제든지 집행부와 시의회의간의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 불씨가 언제다시 또 피어오를지 모를 일이다.

대전시장의 부패로 인해 앞으로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 보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시장공백을 스스로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는 대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고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살맛나는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다

과 눈으로 연결되는 용배수로를 통해 적기에 공급해 주는 농업용수와 농민들의 노력이라는 내부요인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1,283mm로 전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3배이지만 7~8월에 집중되어 농업용수를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적 호우와 가뭄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올해 7월 청주에는 하루 29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엄청난 재해재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근고지영(根固枝榮) 즉,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은 국가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농업의 원동력과 뿌리가 되는 물, 즉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한 점검과 정비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공주세종대전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지면적은 4,992ha이며 7,869명의 농업용수이용자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77곳의 양배수장을 가동하여 영농편의제

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완공된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며 노후화된 시설은 개량 보수하는 한편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으로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수문 등 농업시설물의 조작 및 관리를 통해 농업용수의 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함께 24시간동안 물관리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가뭄과 홍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둘째로 "농업시설물 점검·관리"를 통해 분기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화 되고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의 보수와 보강을 통해 재해대응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경전 저수지 외 7개소에서 시설물 보강을 위한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대응으로 안전영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셋째로 "가뭄대책"의 방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계연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충남 공주보-에당지가 그 대표적인 예다.

공주보 인근에서 예정저수지로 수계를 연결하여 저장된 물을

30km에 달하는 도수로로 통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상습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물관리를 매년 봄부터 여름까지 실행을 통해 농업생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공주세종대전지사에서 극심한 봄 가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방비 722백만원을 확보하여 공주시 우성면 소재 동천보 간이양수기 설치 및 쌍신보 양수저류 등의 한해대책을 통하여 우성물 120ha와 쌍신물 88ha에 안전영농의 토대를 실현하였다.

올해 공주세종지역의 풍년농사는 철저히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체계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유기적인 대응 및 농민들의 피와 땀이 합쳐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라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전문기관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가뭄이나 홍수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풍년농사를 책임지고 신뢰받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약 29만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홍보, 계몽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각 기관에서 안전사고 빈발분야, 국민 불만이 큰 분야 등을 선정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화재취약시설,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포함 지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학교시설, 지진실내 구조소 등의 내진설계 부분도 전수 점검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등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백화점·영화관·여객선 등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문상담(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집중안전진고 기간 행사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464명)'은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 안전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에 참여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점검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함께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체협관을 견학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태선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형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